

‘다시 호남’ 이준석, ‘무조건’ 부르며 “언제든지 오겠다”

지난 21일 전주서 진도 재남하... ‘서진’ 방침 호남·PK·강원·충청·호남...서울·TK 주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전남 진도를 찾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 우선 노래산 등반 공개를 시작으로 물밀 행보를 재개한 이 대표는 전남 전북 전주에서 남하해 호남을 다시 돌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8분께 페이스북을 통해 진도에 있음을 알리며 “지역 상권 활성화 버스킹 행사를 하고 있어서 노래 좀 했다. 진도에 지방선거와 대선 때 영암에서 진도를 잇는 도로와 진도 관동 도로 등에 대해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약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진도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짧은 영상을 첨부했는데, 영상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제가 선거 때 진도에 와서 정말 약속을 많이 하고 갔는데 빠르게 지키기 어렵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수 박성철씨의 ‘무조건’을 선편해 불렀는데, 공개된 부분의 가사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였다. 이 대표는 노래를 마무리하며 “언제든지 진도에서 불러주시면 다시 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회자의 앵콜 유도도 송대관씨의 ‘내 박자’도 불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남(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분식집을 찾아 당원 및 시민 40여명과 떡볶이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22일 공개된 JTV 전주방송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대표는 21일 파란색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전주의 한 즉석떡볶이 식당에서 “전주의 당원에는 따로 연락을 안 드리고 와서 정운천 의원은 인사를 안 오실 것”이라며 “제가 부담을 안 주려고 아까 (정 의원과) 전화는 했는데 오는 걸 따로 말씀은 안 드렸다. 전주에 오는 것도 어제 밤에 결정했는데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운을 폈다.

그는 이어 집행 기간 유일한 메시지인 ‘당원 가입’으로 화제를 끌고 갔다.

이 대표는 “다들 당원 가입하냐? 책임당원 있으신가?”라고 묻은 뒤 한 남성 청년이 이 대표의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 SNS를 언급하자 “지난번에 나 잘리고 나서 전주에 100명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전북에 당원이 책임당원만 3700명 정도 되니까, 정운천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며 “3700명 중 전주에 적어도 책임당원이 젊은 사람만 600명이 더 있다”고 강조했다.

한 남성 청년이 ‘탈당했다가 재가입했을 경우’ 당원 지위에 관해 묻자 이 대표는 “예전에 (당비) 냈던 게 있으면 다시 산정될 것”이라고 답하고 “왜 탈당하셨나. 대선 경선 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안 났다고 욕해서 탈당한 분들이 지금 재가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걸 좀 간소화하기 위해 다른 팩스 보내는 사이트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4월 전주시를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전주에서 가장 궁금해할 얘기”라며 “언론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전남 진도군의 지역 상권 활성화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좌측 마이크 인가 이 대표.

나는 상계동 (출마)해야지”라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이후 집행에 들어갔다가 13일 광주 무등산 등반 사실을 알리면서 물밀 행보를 재개했다. 이후 광주와 제주, 전남 남해안, 경남 진주·창원, 부산, 강원 춘천, 충북 충주 등을 오가며 당원과 시민을 만났다.

호남에 출발한 이 대표가 제주와 부산·경남, 강원, 충청을 거쳐 다시 호남으로 방향을

틀면서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추진했던 ‘서진 정책’이 이 대표 물밀 행보의 주된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직 수도권과 대구·경북은 방문 전이다.

이 대표는 전주에서도 “(서울에서) 지금 2200명이 신청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갈라서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당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 방문도 정치적 의미가 크다.

정승호기자

이재명, 盧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은 것은 지난 5월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참석 뒤 두 달 만이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기는 민주당으로 꼭 만들겠다’고 썼다.

참배 뒤 노 전 대통령 기념관인 ‘깨어있는

시민 문화 체험 전시관’을 둘러본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제 정치인생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리키는 방향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길인 정치개혁·정당개혁의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러 “우리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사람 사는 세상, 또 그런 세상을 위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그 꿈을, 이기는 민주당을 제가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고 했다.

이 후보는 봉하마을 일정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이 지금 우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때”라며 “개혁을 향해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결기, 기득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썼다.

오유나기자

총리·장관들, 대정부질문 데뷔전 어떤 ‘성적표’ 받을까

한덕수 국무총리·청문회 패싱 장관들 데뷔전

국회가 25일부터 사흘 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국회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강조한 만큼 장관들이 야당의 거센 공격에 맞서 정부 정책을 적극 세일즈하는 기회의 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 과정에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장관들이 전문성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5일 진행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하태경 태영호 홍석준 의원이 수비수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고민정 이해식 임호선 김병주 의원이 공격수로 출격한다.

여당은 2019년 ‘탈북 어민 복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이슈를 쟁점화할 계획이다. 전 정부의 안보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의 지지를 하락 국면을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야당은 검찰 인사 등을 통해 ‘검찰 공화국’ 프레임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의 맞대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 한 장관에게 공세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파고들며 현 정부의 난맥상을 집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주면서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문제를 둔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 힘에서는 임이자 조명희 최승재 한무경 의원이 방패 역할을, 민주당은 김경협 김한정 신동

근 이성만 홍성국 오기형 의원,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장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첫 세계경제판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 완화를 강조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빚투·영끌 채무 구제’로 논란이 된 청년 등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대책을 둔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월 구성 지연에 따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제경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4명이다.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박성중 이만희 김병욱 최형두 의원이 방어를, 민주당 한정애 김성주 김영배 전재수 서동용 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격을 하는 질의자로 나선다.

최이슬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